

SW산업 시장환경 글로벌 동향 조사를 위한 MWC 2025 참관

[출장지역 : 스페인 바르셀로나]

☐ 기 간 : 2025. 3. 2.[일] ~ 3. 8.[토] 5박 7일

2025. 4.

디지털법제도팀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SW산업의 서비스형 플랫폼화로 인한 SW개발환경 변화, EU 인공
지능법(AI Act)* 제정 등 글로벌 SW산업 동향 조사의 필요성 증가
* 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 SW산업 신기술 트렌드 파악 및 글로벌 선진사례 수집·분석을 통해
국내 SW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필요
- MWC 2025 참관을 통해 글로벌 ICT·SW 기술 동향을 분석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국내 SW산업 시장환경 개선 방안 시사점 도출
 - (최신 기술 동향 파악) 국내외 ICT·SW 주요 기업과 산업계 기술
동향을 수집 및 분석하고 EU 인공지능법(AI Act) 제정 이후 현황 파악
 - (참가 기업 방문) 국내·외 주요 SW 참가기업 방문 및 담당자 면담을
통한 네트워크 확보 및 SW산업 시장환경 및 제도 관련 이슈 파악

□ 출장 일정 : '25. 3. 2(일) ~ 3. 8(토) (5박 7일)

□ 출 장 지 : 스페인 바르셀로나

□ 출장자 및 담당업무

성명	직급	주요업무
장연수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WC 2025 주요 세션 참석 및 전시 부대행사 참관 등을 통한 SW산업 글로벌 최신기술동향 및 EU 인공지능법 등 현황 조사 * MMC 2025 주요 테마(AI+, 5G Insid, Enterprise Re-invented 등) 및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된 SW산업·서비스 중심 동향 파악 ○ 해외 우수사례 및 신기술 동향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SW 산업 시장환경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적용 방안 검토 등 SW산업 진흥 방안 모색 ○ 전시 참가 기관·기업 담당자 면담을 통한 행사 참여 국내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확보,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

2

전체 일정

일 정	방문지역	시간	내용
3.2(일)	인천 → 바르셀로나	11:15~ 17:50	• 이동(인천 → 바르셀로나) / OZ511
3.3(월)	바르셀로나	9:00~ 12:00	• 참관단 공식일정 및 세부사항 점검 - 일정 및 세부 사항 점검, 전시 관련 정보 확인 - 참관단 전체 회의 진행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해외 글로벌기업(화웨이, 에릭슨, 메타 등) 중심
3.4(화)	바르셀로나	9:00~ 12: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국내 참가 기업(최신 SW산업 및 기술 보유 기업) 중심 - 국내·외 참가기업 인터뷰 섭외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국내 글로벌기업(삼성전자, SKT, KT, LG U+ 등) 중심
3.5(수)	바르셀로나	9:00~ 12: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국내 AI 기업(노타에이아이, 허드슨에이아이, 래블업 등) 및 한국관 중심
		13:00~ 18: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국내 스타트업 및 우리원 지원기업 중심
3.6(목)	바르셀로나	9:00~ 12:00	• MWC 2025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 캐나다, 스페인 등 해외 국가관 중심
		13:00~ 18:00	• 행사 참여 국내 SW기업 면담 - SW 사업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수렴
3.7(금) ~3.8(토)	바르셀로나 → 인천	9:00~ 16:00	• 참관단 정리회의 개최 - 참관단 대면 미팅(Wrap-Up) - 전시회 참관 내용 공유 및 보고서 작성 계획 논의 등
		20:40~ 17:05(+1)	• 귀국(바르셀로나→인천) / OZ512

※ 출장 효율화를 위해 우리원 참관단 연계 출장

※ 전시기간(3.3~6) 중 참관단 집결회의(계획 및 세부 사항 점검, 09시) 및 해산회의(참관 결과 공유 및 안내 사항 전파, 17시) 추진(장소 : 전시장 1홀 입구)

1. SW산업 신기술 동향 분석 및 현황조사(시모빌리티 및 EU인공지능법 중심)

□ AI 모빌리티 개요

- 자동차, 철도, 선박 등 단순한 이동 수단에 불과했던 기기들에 편의성 및 AI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합한 개념인 모빌리티(mobility)가 주목
 - 기존 글로벌 완성차 산업영역에서 모빌리티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운전자를 포함한 사용자 전반의 효율성·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
 - 초고속 통신 및 대용량 초저지연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능형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이 특히 주목받는 중
 - 내연기관 및 연비 향상에 집중되었던 운송, 수송기기에 신기술(AI, 자율주행, 탄소중립 등)이 융합되면서, 기존 기계장비 및 엔진 부품을 뛰어넘는 신소재 기술이 요구
 -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 역량 대신,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술과 생태계의 경쟁우위가 결정(예: 테슬라 전기자동차 특허 공유 등)

< 모빌리티의 정의* >

모빌리티	▶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
첨단 모빌리티	▶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의 운행·제공·설치·운영 방식이나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모빌리티 혁신	▶ 모빌리티에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모빌리티혁신법)

- MWC2025가 주목하는 모빌리티는 더 이상 자율주행 자동차만이 아닌 제조, 의료, 철도, 국방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영역으로 확대
 - 특히 지난 MWC2024 최대 화두 UAM은 각국 규제와 투자 비용 등으로 관심이 식은 반면 AI로 무장한 드론, 자동차, 로봇 등이 중점 소개

□ SI 모빌리티 산업동향

○ 정부는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 및 과학기술 정책 안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육성** 중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약칭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 첨단 모빌리티는 ①자율주행시스템 ②도심항공교통(UAM) ③전기·수소차
세부 기술로 구분하고, 전략로드맵 및 글로벌R&D 전략지도 등을 수립

< 첨단 모빌리티의 기술유형별 협력전략지도 >



□ 시사점 및 우리원 정책방향

○ (시사점)

- (차이나 쇼크) 화웨이, 샤오미, 아너 등 중국이 선보인 기술과 서비스는 경쟁사를 압도했을 뿐 아니라 초격차 기술을 통한 비전을 제시하여, 한국은 중국과의 차별화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 (모빌리티 혁신)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AI+네트워크,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이며, 모빌리티 혁신은 교통을 통한 이동성, 고령화 사회의 포용과 접근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성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

○ (정책방향)

- 첨단 모빌리티 등 정부의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정책에 발맞춰 NIPA는 신산업 분야 대상 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국가전략기술 중 SW 비중이 높은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를 접목하여 자동차, 로봇, 드론 제조·부품사 및 SW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의 기획 등 AI·모빌리티 기반 SW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

□ EU 인공지능법(AI Act) 및 규제현황 조사

- (EU 인공지능법*) AI에 관한 세계 최초의 규제 프레임워크로, AI 시스템의 안전과 윤리적 원칙을 보장하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

* Regulation (EU) 2024/1689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 2021년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최초 제안한 후 3년 만인 2024년 3월 유럽의회 통과되었고, 2024년 5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됨

<EU 인공지능법(AI Act) 주요 내용 및 위험도에 따른 구분>

<EU 인공지능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발생시키는 인공지능의 관행 금지 ○ 고위험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목록 분류 및 구체적인 요건 설정 ○ 고위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배포, 제공 주체에 대한 의무 명시 ○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 출시 전 적합성평가 요구 ○ 특정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 출시 후 안전 관리 감독 준비 ○ 유럽연합 및 회원국별 거버넌스 구조 확립 	
<위험도에 따른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법은 위험 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에 따라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별로 4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할 것을 명시 	
구분	주요 내용
허용 불가 위험 (Unacceptable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기본권에 대한 명확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AI 시스템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인지 행동을 왜곡하는 AI 시스템, 정부나 기업이 시민에 대해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을 허용하는 시스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등이 해당
고위험 (High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은 위험 완화 시스템, 고품질 데이터 세트, 활동 기록, 상세 문서화, 명확한 사용자 정보, 인적 감독, 높은 수준의 견고성·정확성·보안성 등 엄격한 요건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등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요 인프라, 채용이나 대출 자격 여부 평가, 로봇 수술의 AI 적용, 자율 로봇 실행, 수사 증거의 신뢰성 평가, 비자 신청 자동 심사 등 포함 ○ 모든 형태의 원격 생체 인식·식별 시스템은 고위험으로 분류되며, 법 집행의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원칙상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 아동 수색, 테러 예방, 특수 범죄자/용의자 탐지 등과 같은 사안은 예외적으로, 사법 기관의 승인에 따라 제한적 조건하에 사용 가능

투명성 위험 (Transparency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사용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위험을 의미하며, AI법은 필요한 경우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투명성 의무를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챗봇과 같은 AI 시스템 사용 시 사용자에게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AI가 생성한 콘텐츠 여부를 식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 - 딥페이크 등 특정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이러한 사실을 표기해야 하며, 감정인식이나 생체인식 기술이 사용될 경우 이러한 기술에 노출되는 사용자에게 고지 의무
최소 위험 (Minimal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추천 시스템, 스팸 필터 등과 같이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은 대부분 이 범주에 해당하며, 시민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위험이 미미하므로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추가 행동강령 채택 가능)

- 동 법에 따라 향후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면 관계 당국은 시장을 감시하고, 서비스 배포자는 인적 감독과 모니터링을 보장하며 공급업자는 출시 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게 될 전망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에 설립된 ‘AI 사무국(AI Office)’은 EU 차원의 인공지능법 핵심 이행 기관이자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칙 시행 역할 담당
- 인공지능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2026년 8월 전면 적용될 예정
 - 허용 불가한 위험을 초래하는 AI 시스템에 대한 사용 금지는 6개월 후, 거버넌스 규칙과 범용 AI 모델에 대한 의무는 12개월 후,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AI 시스템에 대한 규칙은 36개월 후에 적용

□ EU 인공지능법(AI Act) 관련 정책 및 대응 현황

- (스페인) AI 기술 발전과 윤리적 활용을 위해 AI 감독청(AESIA)* 설립, 딥페이크 범죄화 법안 입안, 자국 언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 개발 지원 등의 정책 추진

* AESIA(Spanish Agency for the Supervi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 AI 관련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AI 기술의 사회적 영향 평가 및 윤리적 기준 확립, 기업 및 공공기관의 AI 남용 방지 조치 시행 등의 역할 수행
→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 강화 노력

- (독일) AI 기술의 산업 적용 확대를 목표로 제조업 · 자동차 · 의료 분야 AI 활용 강화, 인공지능 액션 플랜(AI Action Plan)* 발표 등 산업 촉진 및 경쟁력 유지 대책 추진

* 인공지능 액션 플랜(AI Action Plan) : 독일연방 교육연구개발부 발표(2023.11)하였으며, 전체 인공지능 벨류 체인 강화 등 인공지능 관련 1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교육, 과학 및 연구개발에 초점을 두고 총 16억 유로를 정부가 임기 중 지원하는 내용으로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는 별도의 독립된 규제

→ 산업 중심 AI 발전 전략을 통해 정부 부처 중심으로 인공지능 활용 확대 노력

- (프랑스) AI 개발을 위해 1,090억 유로 투자 계획 발표, 프랑스 국립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 추진, 정부 주도로 AI 연구센터 및 스타트업 지원, AI 관련 교육 및 연구 강화 등

* National AI Strategy : 연구 역량 강화 및 인재 양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AI 도입 촉진, 윤리적 프레임워크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 인공지능 전략

→ AI 산업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경쟁력 확보 노력

- (이탈리아)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EU의 AI 윤리 지침(Ethics Guidelines For Truthworthy AI)* 준용,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강화 노력, 개인정보 보호 및 AI 남용 방지 대책 추진

* Ethics Guidelines For Truthworthy AI : 세계 최초로 국제기구 차원에서 발표된 AI 윤리 지침으로, AI 시스템이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할 핵심 요구사항 제시

→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규제 강화 노력

□ 시사점

-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도 AI 산업 촉진을 위한 움직임이 유럽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 EU 인공지능법이 AI 규제의 세계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EU 소속국들은 이를 준수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 향후 기업·기관이 각국의 개별 정책과 EU 인공지능법의 규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독일은 EU 인공지능법과는 별도로 ‘AI Action Plan’을 추진하여 독립적인 규제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National AI Strategy’를 통해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추진
 - 향후 EU 인공지능법이 시행되더라도 각국의 개별적인 AI 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 국가들이 산업 활성화와 윤리적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AI 정책을 수립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소프트웨어 및 AI 산업의 성장 촉진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
 - AI 산업 성장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AI 기술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노력 필요

2. MWC2025 참관 주요내용

- (한국) 총 187개 기업이 참여한 한국은 자동차 분야 스마트 팩토리, AI 로봇 등 AI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을 공개
 - 특히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위한 4YFN(4 years from now)에는 전체 한국기업 절반에 가까운 78개 기업이 참가하여 미래 가능성 확인

<p>삼성전자 + 현대자동차 (한국)</p>	<p>▶ 업계 최초 5G 특화망 기반 레드캡(P-5 RedCap) 기술 검증 결과 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물류로봇(AMR) 등 고성능·고신뢰성을 요구하는 장비에만 적용되던 기술을 차량검사장비 등 제조 공정에도 적용하여 미래 스마트 제조 솔루션의 가능성 제시 → 통신 단절·지연이 거의 없고 초고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어 스마트 제조 혁신에 필수적인 다량의 산업용 로봇이나 무선장비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가 가능 	
<p>엘지유플러스 (한국)</p>	<p>▶ 2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Alice)'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인 에이로봇과 협력 개발 → LG유플러스가 개발한 AI 모델 '익시'가 적용되어 있으며,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요청받은 동작을 수행하는 기능을 갖추 → 부스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퀴즈를 낸 뒤, 정답을 맞히면 직접 손으로 상품을 들어 전달하며,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고 물병을 건네주는 등 인간과 유사한 상호작용 능력을 선보임 	
<p>하이코어 (한국)</p>	<p>▶ 모델솔루션과 공동 개발한 'AI 자율주행 퍼스널 모빌리티'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9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시범 서비스 도입 예정(실증 단계) → 면세 구간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캐리어를 적재한 채 자율주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특히 이동약자 및 영유아 동반 여행객들도 사용할 수 있어 공항 내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 최종 목적지 도착 후 자동으로 회귀하는 기능 탑재 	
<p>스튜디오랩 (한국)</p>	<p>▶ 촬영 자동화 솔루션 탑재 로봇 '젠시 PB(GENCY PB)'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로봇틱스로 커머스에서 활용되는 상업용 사진 촬영 및 인물 촬영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 AI가 실시간으로 피사체를 분석해 최적의 촬영 구도를 잡아주며, 피사체의 특징을 부각하는 커머스용 사진을 전문 사진 작가 대신 촬영 가능 → 모델의 특징부터 제품의 특징, 배경 정보 등을 분석하여 커머스 기업에서 원하는 감도의 촬영이 가능하도록 구현 	

○ (중국)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해 CES보다 MWC에 집중한 중국은 참가 규모는 3위*이나, GLOMO 어워즈 수상** 절반을 휩쓰는 등 저력 과시

* 1위 스페인(744개, 개최국), 2위 미국(443개), 3위 중국(344개), 4위 한국(187개) 등

** 총 47개 중 25개 기업 수상, 대상 격인 'CTO Choice'는 차이나모바일 및 화웨이 수상

-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활용한 스마트 카 등 MWC25에서 가장 압도적 기술 비전을 제시하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기회로 활용

화웨이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초 5G-A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콰푸(Qiapu)'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 5,000km 떨어진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동관(중국)에 있는 자율주행차를 실시간 원격 운행하는 기술을 선보임 → 화웨이, 차이나모바일, 레주 로봇의 공동 개발 ▶ MWC25에서 최대 전시부스(약 9,000m² 규모)로 존재감 ↑ ▶ 글로모 어워즈 'CTO Choice'를 포함, 총 8개 부문 수상 	
샤오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속 350km에 이르는 슈퍼카급 전기차 'SU7 울트라'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오미의 AI 어시스턴트 '샤오아이'가 차량과 연동돼,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최적화된 운전 환경을 제공 → 제로백 1.98초, 출력 1,073마력(예상) 등 포르쉐 타이칸 터보를 능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4도어 양산차라 자평 	
차이나텔레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드론'이라고 스스로 표현하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플라잉카 '샤오펑(XPENG) X2'의 자율주행 시승을 통해 미래형 교통수단의 가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테스트 단계이나 최대 적재량 235kg, 최대 속도 시속 130km, 배터리로만 25~30시간 이동 가능 ▶ 국유 통신사로써 'AI-네이티브 RAN' 기술 활용사례 공개 → 로봇 개가 특정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경로 계산, 사물 인식 등을 각 기지국 내장 AI칩을 통해 빠르게 수행 	
차이나모바일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펑치(Fengqi)'와 반려견 로봇 '샤오리(Xiaoli)'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오리는 방문객에게 앞발을 내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기분좋은 표정을 짓는 등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선보임 ▶ 글로모 어워즈 'CTO Choice'를 포함, 총 4개 부문 수상 	
유니트리 로보틱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대신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 'G1'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이 1.3m, 무게 35kg, 접었을 때 69*45*30cm 크기로 운반이 용이하며, 시속 7.2km로 이동 가능 → 관절 역할을 하는 43개의 모터가 장착되어 유연한 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3개의 손가락을 움직여 계란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물체도 정밀하게 조작 가능 → 우수한 균형감각과 운동능력으로 세계 최초로 사이드플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뒷걸음질 치기, 몸을 뒤로 꺾기, 관람객들과 춤을 추는 모습 등을 선보임 	

- (그 외 국가) 스타로보틱스(스페인), 레노버(홍콩), KDDI(일본), Viettel (베트남) 등 로봇 중심의 다양한 AI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공개

인로빅스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 치료 지원 로봇 솔루션 '인로빅스 리هاب(Inrobics Rehab)'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운동기능 저하, 신경계 손상, 인지 장애 등이 있는 개인의 재활 훈련을 지원하는 로봇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솔루션 제공(유럽 의료기기 인증 획득) → 3D 카메라 및 웨어러블 팔찌를 활용해 운동범위, 반응 시간 등 재활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료 효율성 향상 	
스타로보틱스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감시 로봇 '와치봇 서베일런스(Watchbot Surveillance)'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0° 비디오 녹화 및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자율주행 가능 → 열화상 카메라와 및 야간 투시 기능을 통해 어두운 환경이나 열원 감지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감시 가능 → 양방향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하여 사용자가 로봇의 주변 소리를 듣고 내장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 원격지에서도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 → 스타 로보틱스의 자체 개발 클라우드 플랫폼인 AUROS와 연동 되어, 원격으로 로봇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경로를 계획함 	
레노버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toGP 서킷의 트랙 데이터를 수집하는 자율주행 로봇 'NTB-01'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노버와 이탈리아 유명 모터사이클 기업인 두카티의 기술 협업으로 개발된 자율주행 로봇으로, 독립적으로 서킷을 주행하며 상세한 트랙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음 →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정확성을 향상 시켜 다양한 설정 변경이 트랙 조건에 미치는 영향 예측 가능 → NTB-01의 최고 속도는 약 200mph(시간당 321km)에 달함 	
KDDI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의 '이동식 편의점' 자율주행차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내부에는 과자, 음료수, 휴대폰 충전기 등 다양한 상품이 비치되어 있으며, 물건을 채우면 운전자 없이 차량 스스로 정해진 지역까지 배송하는 AI 자율 배송 시스템을 갖춘 → KDDI의 통신 인프라를 갖춘 생성형 AI가 배송 차량, 물류 트럭 등으로부터 얻는 대량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 → 5시간 동안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일본 일부 지역에서 이미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행 중 	
Viettel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 상품 분류 로봇(AGV)'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플랫폼에서 작동하는 물류 분야의 5G 애플리케이션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로봇 공개 → 로봇이 소포를 지역별 배송 가방으로 보내주는 자율 상품 분류 기능을 통해 운송 프로세스와 창고 관리를 최적화 → 제조업 허브로 떠오른 베트남의 물류 인프라 혁신 	

□ 현장인터뷰

○ ATWC24, CES25에 이어 MWC25까지 상륙한 브이스페이스

- E-모빌리티, 도심항공모빌리티(UAM) 관련 기술개발, 전기 수직 이착륙(eVTOL) 항공기 부문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국내 중소기업
- 국토교통부 형식 인증을 신청한 최초의 항공기인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 VS-300을 개발하고 있으며, MWC25에서는 개인용 AAM(Advanced Air Mobility) 항공기 목업(mock-up) 기체 전시
- 수소 하이브리드, 고밀도·고출력·고안전성 배터리시스템 등 차세대 기술을 적용해 연내 산악지형, 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체를 상용화할 예정이며, 미연방항공청(FAA) 또는 유럽항공청(EASA)의 정식 감항인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할 계획

참고

VS-300(Vspeeder-L)

- 국토교통부 TC 체계 개발 연구에 활용될 시제기로, 고밀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로 설계됨
- 경량 구조와 고에너지 밀도 배터리를 통해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첨단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대도시 지역 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 2026년에 시험용 초도기로 돌아올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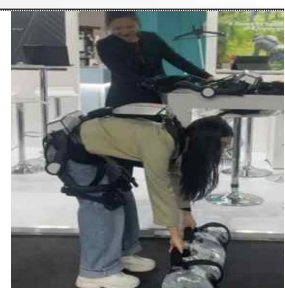
○ 산업용 근력 증강 웨어러블 로봇 '스텝업'을 선보인 FRT로보틱스

- 산업 근로자를 위한 근력증강 로봇 '스텝업 시리즈'와 국방·소방용 '하이퍼 시리즈'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웨어러블 로봇기업
- '스텝업'은 조끼 형태의 착용형(웨어러블) 로봇으로, 작업자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이송할 때 그 짐의 무게를 실제보다 가볍게 느끼도록 보조





참고

착용형(웨어러블) 로봇 '스텝업'

- 근피로도를 최대 40%까지 감소시키고, 물건을 들 때 기존 무게의 15~20%까지 가볍게 느껴지도록 돕고 반복 작업의 가능 횟수도 증가시킴
- * 착용 시 작업자의 피로도 개선, 근골격계 질환 및 부상 예방 효과
- 실제 소방청, 산림청 등에서 활용 중이며, 향후 레저·국방 등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로봇이 될 것으로 기대



- (SmartMobility Summit) MWC25는 Connected Industries 컨퍼런스를 통해 자동차, 항공, 물류, 해상 등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청사진 제공

주제 및 세션명		세부 내용
인프라 혁신	백본 구축 - 현대 모빌리티의 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네트워크의 핵심과 현대적 모빌리티 및 물류의 기반으로서의 역할 논의 ▶ 모빌리티 부문이 실시간 데이터와 자동화에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5G는 대규모의 즉각적인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는 유연한 인프라를 제공 → 안정적이고 확장성있는 연결, 실시간 데이터 처리, 보안 강화 등을 위해 견고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의 잠재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장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레벨4 자율주행으로의 전환, 그에 따른 모빌리티 생태계 재편에 대한 논의 → 데이터 공유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전,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통합, 그리고 생태계 전체 협업에 대한 시급성 등을 공유 → 또한 내결함성의 개선, 복잡한 규제에 대한 조사, 끊임없는 사용자 경험 확보 등 레벨4 자율주행 운영상의 해결과제 등을 논의
기술 혁신	모빌리티 강화 - 네트워크 API와 AI가 혁신을 주도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생태계 참여자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솔루션을 활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등 모빌리티 및 운송의 실제 사례 공유 → 자율 주행차, 도시 항공 모빌리티 솔루션 및 기타 자율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GSMA Open Gateway Initiative와 AI가 지원하는 Network API는 모빌리티 및 운송 서비스의 성능, 유연성 및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킴 → 네트워크 API, AI, 보안은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영과 모빌리티 생태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공유
수익화 전략	성공의 열쇠 - 수익화, 파트너십 및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빌리티 생태계의 파트너십이 수익 창출을 위한 성공을 거두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 → 파트너십의 실제 사례 연구 및 실무 경험을 통해 모빌리티,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공유하며, 이러한 협업이 어떻게 혁신과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솔루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지 논의 → 모바일 네트워크 진화는 모빌리티 부문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시간 데이터 교환, 고속 연결 및 저지연 통신을 활용함으로써 기업은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
세션 참여 기업	 (지식파트너)	<div>    </div> <div> (후원사) </div>

바르셀로나 모바일 박람회(MWC 2025) 개요

- ☐ 전시명 : 모바일 국제 박람회(MWC: Mobile World Congress)
 - * 1987년 시작한 이동통신 박람회로 3대(CES, MWC, IFA) IT박람회 중 하나
- ☐ 기 간 : '25. 3. 3(월) ~ 3. 6(목)
- ☐ 장 소 : 스페인 바르셀로나 Fira Gran Via
- ☐ 면 적 : 120,000m²
- ☐ 규 모 : 세계 200여개국 2,700개 기업 및 100,000여명 참관 예상
- ☐ 주 체 :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 Association)
- ☐ 주요 전시품목 : 무선통신 모바일 생태계 전 분야, 모바일 컴퓨팅 및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AI, 5G, IoT, VR/AR, 이동통신장비, 센서, 이미징, 클라우드 등
- ☐ 주 제 : 'Converge, Connect, Create(융합하라, 연결하라, 창조하라)'
다양한 모바일 기술을 융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과 솔루션을 창조하라

< 최근 3년간 MWC 주요 키워드 >

연도	주요 키워드
2023년 (2.27~3.2)	①5G 가속화, ②가상현실과 메타버스, ③오픈 네트워크, ④핀테크, ⑤디지털 모든것
2024년 (2.26~2.29)	①5G와 통신, ②모든 것을 연결하기, ③인간과 AI, ④제조 DX, ⑤디지털 DNA 등
2025년 (3.3~3.6)	①5G Inside, ②Connect X, ③AI+, ④Enterprise Re-invented, ⑤Game Changers, ⑥Our Digital DNA

참고

MWC2025 NIPA 참관단 명단

본부명	팀명	성명
메타버스본부		조영진 본부장
지역디지털본부		정수진 본부장
AI인프라본부	AI반도체팀	이길영 수석
	AI전략팀	박근하 수석
AI융합본부	디지털헬스신성장팀	노승우 책임
	AI확산팀	김윤하 책임
지역디지털본부	지역디지털기획팀	김성경 책임
	디지털인재양성팀	이병주 책임
SW미래본부	SW산업팀	심정민 수석
	디지털법제도팀	장연수 선임
메타버스본부	메타버스융합팀	유한종 팀장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팀	안재혁 수석
	안전총무팀	민지영 책임
참석인원 합계		총 13명